

■ 당·정·청,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 일원화 방안 발표

제주자치경찰 독립지위 상실 위기 '술렁'

환경분야 등 일부 수사권한도 수사경찰로 넘어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 일원화 방안을 놓고 제주자치경찰단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당·정·청 방안대로라면 제주자치경찰단은 독립한 외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사실상 국가경찰에 흡수된다.

당·정·청이 내놓은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 방향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당정청은 경찰 업무·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을 논의해왔지만 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당·정·청이 제시한 자치경찰제 시

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경찰 업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 사무로, 지역적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했으며 수사는 수사경찰 사무로 뒀다.

경찰 사무 별 지휘·감독 체계도 다르다. 국가경찰 사무는 기존처럼 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가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가 지휘·감독한다. 수사경찰 사무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될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맡은 사무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된 외청으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은 사실상 그 지위를 잃게 된다. 또 산림·환경·식품위생 분야 등 제주자치경찰단이 그나마 갖고 있던 수사 권한마저 '수사 경찰'로 넘어가 제주자치경찰 제도의 특수성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경찰 조직을 일원화 한다면 현원이 156명인 제주자치경찰이 12만명의 국가경찰에 흡수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이미 자치경찰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당·정·청 방안이 확정되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정·청 방안은 큰 밑그림이지 조직·예산·권한

등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발의될 경찰청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4일 발의될 예정으로 이 개정안에 당·정·청 방안이 고스란히 반영될 지, 아니면 이미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제주의 사정을 감안해 제주에 대한 예외 조항이 담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제주자치경찰단이 인정받은 외청으로서의 지위나 수사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개정안 내용을 선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에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대학교 등록금 반환 작업 착수

"총학과 논의 중"... 납부 등록금의 10% 유력

교육부의 예산 지원 방침이 세워지면서 제주대학교가 등록금 반환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00억원(일반대 760억원·전문대 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규모는 대학의 실질적 자구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자구노력은 ▷특별 장학금·통신지원비·주거지원비·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실적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학의 고충분담 정도 ▷재정여건 등이다.

예산 지원은 10월부터 집행되며, 선정된 대학은 학생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온라인 강의 구축·운영 지원 및 질 관리 ▷코로나19 대응 방역 ▷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장학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는 이번 교육부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 반환을 위한 재정 파악에 나서고 있다. 반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앞서 등록금 감면 계획을 발표한 전북·충북·부산대처럼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 관계자는 "이번달까지 총학생회와 협의를 통해 반환 금액과 대상,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제주대학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측은 비대면 강의에 따른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수목진단센터' 제주 설치 추진 '주목'

제주대 관련과목 개설 등 유치 총력전

제주에 '수목진단센터' 설치 추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수목진단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수목진단센터는 생활권 수목진료의술 발전촉진 및 지역별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 수목진료 관련 전문가 양성,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보급 등 전문적인 수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국 거점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대에만 설치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해 '수목진단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제주대는 올해 6월 다시 한 번 수목진단센터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산림청에 발송한 상태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림경관자원이 중요한 지역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만 아니라 빗나무 빗자루병(진균), 담팔수 위황병(파이토폴라즈마) 등 위협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수목진단센터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도내 대학에는 수목 관련 연구나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기구가 없다. 이에 수목진단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 교과목으로 수목의학 및 실습을 개발해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농가에 배달될 모종 선적 1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종묘장에서 무더위속에서 각종 모종들을 농가에 배달하기 위해 선적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강희민기자

교통사망사고 잇따라

도내서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1분쯤 제주시 이호1동 현사마을 입구 인근 도로에서 A(29)씨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한 도로에서 B(58)씨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버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해경, 피서철 맞아 음주운항 불시 단속

10일부터 제주해역 운항 선박

제주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일부터 22일간 음주운항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제주해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해경은 바다에서 안전 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음주측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월은 제주지역내 유·도선, 수상레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수요 증가와 맞물려 한치, 갈치 거친 뒤 오는 10일부터 22일간 음주운항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제주해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이상민기자

비번인 날 길을 건넌 소방관은...

심정지 60대 시민 발견 심폐소생술로 회복시켜

비번이던 한 소방공무원이 심정지로 인도에 쓰러진 시민의 목숨을 구해낸 사연이 전해졌다.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소속 고진혁 소방사가 주인공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고진혁 소방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일도2동 인근을 건넌 중 쓰러진 강모(61)씨를 발견했다. 고 소방사는 해당 환자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구

급대원이 도착할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엔 쉽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고 소방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후 강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한 119구급대원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는데 고진혁 소방사의 발 빠른 골든타임 대처가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동행세일
보청기전 브랜드 50~60%대할인!!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종전식 콧속형 보청기
490만 → 150만! 980만 → 270만!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종전식 보청기 9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뱅진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레아몬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강,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로,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및 농촌진흥청 통상상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